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소고

Essay on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김형수 | Kim, Hyung-soo, KIRA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약력

-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건축사공기술사
-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

올해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3회를 맞이한다. 작년과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ECC관에서 10월 20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영화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이 영화제를 승인을 해주신 임원님과 회원님들 덕분이다.

작년 행사와 달리 올해 처음 진행되는 행사는, 지방의 건축문화제에 건축 영화 상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부산, 인천, 대전, 경상북도,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의 건축문화제에 1, 2회 영화제 상영작 중 최고 흥행작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영화를 선별하여 기획하고, 필름을 제공하면 어느 도시나 훌륭한 영화제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효율적이고 매력적이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처음 기획되어진 이유는 어떻게 하면 건축이 일반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소개되고, 홍보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들이 근래에 많이 디자인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콘텐츠는 풍부한데 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릴 대중적인 코드가 취약한 상황이다.

건축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패널과 모형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기획되어지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코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영화라는 보다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일반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4년간 기획되어지고 올해로서 3회째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관객이 온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싶은 고등학생 딸의 손을 잡고 온 어머니도 있었고 대학교에서 건축과 진학을 위해 스스로 건축동아리를 만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어려운 환경의 건축사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었던 어떤 직원들은 건축에 대한 꿈을 다시 한 번 얻어가게 되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건축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셨다. 극장은 항상 만원이었으며 영화관이 생긴 이래로 최대의 객석 점유율을 올려 영화관 관계자들이 무척 놀라기도 하였다. 건조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건축영화중에는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영화도 있었다. 루이 칸의 일대기를 다룬 "My Architect"와 "프라하의 눈"이 그러한 영화였다.

작년 영화제의 경우 100군데 이상의 언론매체에 소개되어 건축계 행사 중 가장 많은 언론 노출기록을 가지고 있다. 건축지뿐만 아니라 여성지, 영화지, 문화지 및 중앙 방송 매체에 친근하게 노출되어 건축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건축이 홍보되었다.

지금은 영역간의 구분이 파괴되어지는 하이브리드의 시대이다.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건축의 풍부한 콘텐츠와 영화의 대중적인 접근성이 융화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하이브리드라는 패러다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놓은 한국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서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